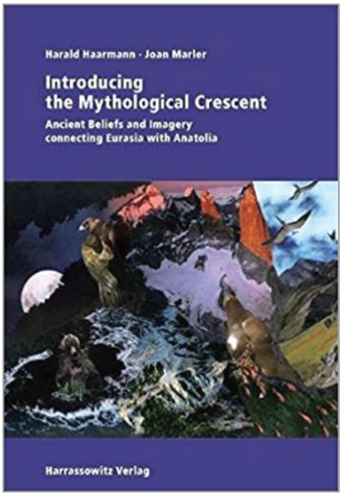

제목	Introducing the Mythological Crescen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rassowitz Verlag
발행일	2009. 1. 2.
저자	Harald Haarmann Joan Marler
출판국가	독일
페이지수	188
ISBN 또는 ISSN	978-3447058322

내용 요약

선사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된 신화적 전통과 그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화권이 있다. '신화의 초승달'로 불리는 이 지역은 고대 중동에서 아나톨리아를 거쳐 남동부 유럽까지 이어지고 유라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융합적인 문화 영역이다.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와 아나톨리아의 접촉과 교류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다.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지역은 고대 신앙 체계에 있어서 특별히 유사성을 가진다. 유라시아 원주민의 신앙과 의식적인 관습 구석구석에는 가장 오래된 문화적 지층인 샤머니즘이 뿌리 내리고 있고, 아나톨리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 이면에는 고대 아나톨리아 정주민과 채집인 또는 유목민의 생활양식이 들어있다. 말하자면 비록 원시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고대의 신념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하나의 모티브는 여성입상인데, 이것은 여성의 생산성을 상징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풍만한 육체의 여성들이 중요했던 것은 우랄과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역사적인 민속 예술에 기록된 생물의 연속성, 초목주기 및 모든 생물체의 자연 서식지 보호에 대한 영적 관념과 상관있다.